

염불 외국어 토론...올해는 '부루나'

교육원, 6월1일 조계사 앞마당서 제1회 조계종학인 설법대회 개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로 불렸던 부루나(Purna)를 꼽는 예비승들이 법문 실력을 뽐낸다. 종단 기본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이 설법 능력을 겨루는 '제1회 조계종학인 설법대회(이하 설법대회)'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 주최로 오는 6월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학인들의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 '염불시연대회'와 2015년 '외국어스피치대회'에 이어 2016년에

'토론대회'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학인들의 대승설법에 필요한 자질 향상을 위해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설법과 토론> 교과목을 신설한 올해는, 학인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설법대회를 연다.

설법대회는 설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설법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 학인들의 전법포교역량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참신한 설법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 우리 시대의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욕이다. 참가자 1인이 8분 이내로 준비해온 설법을 시연하여 스피치 능력과 불법 전달 능력을 겨룬다. 주제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설법할 수 있다. 각종 소품 또는 기자재(마이크, 노트북 등)를 활용하거나 보

조 참여자의 조력을 받아 무대를 꾸며도 좋다.

대회는 6월1일 예선(오전)과 본선(오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선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개조로 운영되며, 본선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다. 예선에서 심사점수가 높은 12명의 스님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 심사에 따라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본선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사위원단 외에 청중평가단(스님 및 재가자)을 구성하여 현장투표방식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설법대회 참여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본선대회는 모든 대중이 참여 관찰할 수 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9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예방을 받고 "화쟁 정신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재명 시장과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다음 호에 게재한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차별없는 사회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이재명 성남시장 예방 받은 총무원장 스님 '화쟁' 강조 안희정 도지사에 통합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영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화쟁'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올해 종단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조"

라며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울조 장애인 빈곤차별 철폐 농성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했는데, 조계종의 시대정신이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도 "이재명 시장이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늘 강조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기획실장 주경스님도 "이번 정국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는데 훌륭하고 소신 있는 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현 정국

과 불교계 현안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환담 이후 이 시장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보다는 크게 화쟁의 정신으로 평화롭게 가야한다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 말씀에 공감하고 바른 길을 평화롭게 가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탄핵심판 선고 이후 예상되는 갈등 봉합을 위해 화합과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08회 총회 앞둔 특위 움직임

은퇴출가 연령 만51~65세 조정

'은퇴출가법' 제정안 27일 재상정

조계종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출가법)'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중앙총회 출가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 이하 출가제도특위)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조항을 수정했다. 출가제도특위는 오는 16일 제11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된 뒤 2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은퇴출가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뒤 여생을 부처님에 귀의해 수행과 전법으로 회향하고 싶은 은퇴노령자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정안은 지난해 중앙총회에서 부결된 특별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지난 2월15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특수한 신분의 은퇴출가자는 정식 스님인 비구(니)가 되기 위한 기본의무교육과 승가고시가 면제된다.

비구(니)계 수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또한 권덕(계덕)을 초과하는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4급),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10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해 손질했다. 은퇴출가자 연령을 만 55~70세에서 만 51~65세로 조정했다. 일반 출가자들의 연령 상한이 50세 이하인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행자기간을 기준의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령자들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예비승인 사미(니) 기간은 5년으로 유지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이력이 입증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 한다. 발심과 원력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은사의 연령 하한(만 55세 이상)은 폐지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멸빈자, 1회 한해 사면·경감 추진

16일 종헌개정안 확정하기로

종정예하의 신년교사로 멸빈자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총회 가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계종 제16대 중앙총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부칙에서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헌종법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제208차 중앙총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종헌종법특위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 삭제 안, 단서조항을 일부 수정해 멸빈 징계지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종헌 부칙에서 128조를 1회에 한해 제한하는 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단서조항을 수정할 경우, 종단 징계 체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면·경감된 자는 향후 5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총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에서 일체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한다'는 조항은 종헌이 아닌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홍다영 기자

“비구니 스님 수술비 지원” 전국비구니회 31일 정기총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는 오는 31일 오후1시 전국비구니회관 법통사 큰법당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지난 2016년 사업결산과 올해 사업승인이 안건으로 다루진다. 특히 올해 사업으로 조계종 승려복지회, 동

국대의료원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관리 협약을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 사업, 수술비 지원 사업과 사찰음식 승가교육, 호스피스 교육과정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불교영여통번역 과정 신설, 전국비구니회 회지 발행, 군부대 포교, 운영위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된다.

안익수 기자 isahn@ibulgyo.com

본·말사주지인사 (3월8일 총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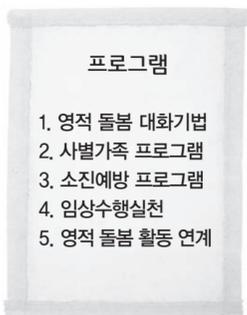
연규스님 의왕 용화사 | 덕산스님 청주 혜은사 | 각소스님 괴산 채운암 | 성민스님 경산 미타사 | 경선스님 영덕 관음사 | 구주스님 부산 정수암 | 동안스님 안동 대원사 | 자광스님 영주 정안사

www.mahaedu.org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8기

- 실습중심 -

승려연수 30점 인증 (대불교연인 2016-23호)



- 교육기간 2017년 4월 12일(수) ~ 4월 14일(금) 2박 3일
- 교육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 교육정원 30명 (선착순 마감)
- 접수마감 2017년 3월 29일(수) 도착
-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승려증 사본
- 교육비 25만원(농협 : 351-0587-2656-13 마하보디교육원) *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아마타 호스피스교육 수료스님 : 5만원 할인

Soul Mother 프로그램

(영적돌봄을 위한 기도)



- 교육기간 매월 첫째주 일요일(10회) 1회차 2017년 4월 2일(일) 13:00~22:00(9시간)
- 교육대상 사부대중
- 교육정원 20명 (선착순 마감)
- 접수마감 2017년 3월 17일(금) 도착
-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 교육비 140만원(수련복, 교재비 별도) *교육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주최 (재)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접수문의 TEL 052)255-8522, 8524

E-mail mahabodhi@daum.net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 KTX울산역에서 15분 거리